

제2회

정명숙의 소리여행 아산농요발표회

아산 농부들의 들소리

2022년 11월 2일 (수) 늦은 7시
아산 평생학습관 공연장



| 후원 |

 충남문화재단

아산농요민요보존회

무형문화재 제4호 평북농요보존회

프로그램 안내

제 1 목 이산 농부들의 들노래 (가창-정명숙)

1. 어기야 자자 - 모 심을 때 부르는 소리
모를 찌서 심기 좋게 논 여기 저기 흠어논 모 뭉치에서 3~4 잎씩 떼어서 심는다.
2. 느린얼카덩어리 - 초벌 논 땀 때 부르는 소리
초벌메기 또는 아시메기할 때 부르는 소리로 호미로 논 바닥 흠을 얹어서 논을 메기때문에 일이 무척 고되다. 충청도 서북부 지역에서 불리우던 소리로 아산지역까지만 느린 얼카덩어리가 불리워졌다.
3. 얼카덩이 잘 넘어간다 - 초벌메기할 때 부르는 소리
어느정도 일이 끝나갈때는 소리도 조금 빨리 메기고 받는다.
4. 오마디소리 - 두벌메기할 때 부르는소리
두벌메기 할 때 부르던 소리로 아산지역에서만 불리웠다.
손으로 논을 메며 부르는 소리로 소리가 유장한 것이 특징이다.
5. 오 흘러가세 - 자주땀 때 부르는소리
역시 일이 어느정도 끝나가면 메기고 받는 소리도 빨라지고 소리도 몰아가며 일을 마친다.

※ 막간공연 - 설장구 (서경아)

제 2 목 이산골 농부들의 장가지랑

1. 피리산조 - 서용석류 짧은산조 (피리:남기문, 장단:)
남도음악의 대가인 서용석 명인이 1984년부터 구음으로 가락을 구성하기 시작해 1987년도에 완성한곡.
피리의 좁은 음역과 날카로운 음색등의 한계를 깊이있는 선을 구성과 자연스런 장단새로 극복했으며
계면조의 깊고 굽은 성음이 특징이다.
2. 서도민요 - 잣은난봉가, 빠른난봉가, 사설난봉가 (특별찬조출연)
평안남북도, 황해도 지역에서 불려지고 발달된 민요. 윗음에서 콧소리로 잘게 떠는 것이 특징이다.
(박민희 선생님, 이진우, 곽남식, 김미주, 김석근, 유춘자, 이 진애, 김은희, 송미근, 최경숙)
3. 무용 - 입춤소고 (오순옥, 권희숙)
풍물이나 탈춤에서 굿거리 장단에 맞추어 추는 춤.
무구의 사용에따라 입춤, 소고춤, 수건춤으로 개별성을 갖추게 되었다.
4. 경기민요 - 풍년가, 자진방아타령, 뱃노래
서울, 경기, 충청일부에서 불려지고 발달된 민요. 밝고 경쾌하며 서정적이다.
(정명숙, 황신영, 장수자, 함성월, 최완수, 한기성)
5. 평북농요 - 무형문화재 제4호 평북농요 보유자 박민희 선생님과 함께
씨뿌리기, 낫소리 (특별찬조출연)
평안북도에서 농사지를 때 부르던 소리로 봄 농사일부터 가을 추수 하기까지의 소리가 잘 전승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6년도에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이진우, 김남식, 김미주, 김석근, 유춘자, 이 진애, 김은희, 송미근, 최경숙, 정명숙)
6. 북놀이 - 이용숙
진도지방에서 농부들이 일할때 그 힘듦을 덜기위해 북놀이를 하던것에 동작의 체계를 갖춰
널리 퍼지게 되었으며 1987년도에 전라남도 무형문화재 제 18호로 지정되었다.
7. 아산민요 - 화투타령, 숫자풀이, 아산의온천아리랑 (정명숙)
아산에서만 불려졌던 소리를 발굴하여 처음 선 보이게 되었으며, 아산의 온천아리랑은 2021년도에
아산의 명품화 브랜드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출연진



아산농요보존회장
정명숙



평북농요예능보유자
박민희



무대감독
남철우

아산농요 회원



황신영



함성월



장수자



한기성



오순옥



권미순



공금석



황희식



이범택



최완수



남기문

아산농요 농악단



이용숙



서경아



위미숙

평북농요 회원



이진우



김남석



김석근



유춘자



이진애



김미주



김은희



송미근



최경숙

공연사진

